“닫힌 남북관계, 금강산관광으로 다시 열리길”

조계종, 4월 8일 고성 DMZ박물관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기원법회’
통일전망대서 ‘금강산 가는 길 걷기’
진우 스님 “언제든 평화 외칠 용기”
불교유산조사단·순례단 방북 허용
신계사 복원 20년 행사 협력 촉구

고성=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은 4월 8일 강원 고성 DMZ박물관서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사진은 민추본 집행위원 정응 스님과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이 ‘평화통일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법회 후 사부대중 400여 명이 ‘금강산 가는 길 걷기’에 나섰다.



‘금강산 가는 길 걷기’는 미륵대불 앞에서 회향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화합을 염원하는 불교계의 간절한 목소리가 접경지역에서 울려 퍼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8일 강원 고성 일대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발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남북 교류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가 주관한 이날 기원법회는 DMZ박물관 대강당에서 1부 기원법회로 시작됐다. 법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당국 간 과제와 의지를 불교계가 견인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평화 기조 및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금강산관광 재개를 재조명하고 공론화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봉행사에 나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성행 스님은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불교문화유산이 깃든 수행의 도량이고 금강산관광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온 민족화해와 교류의 상징”이라며 “단절된 금강산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단순한 관광 재개를 넘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의 길로 돌려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은 남북 불교계가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하고 교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단절된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리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이 땅 위에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 앞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 시기를 떠올렸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눈물의 상봉을 이뤘던 일, 남북 민간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말과 문화를 나누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었던 일 등을 언급한 스님은 “금강산이 열리기 이전의 남북관계가 대립과 갈등, 긴장으로 이어지는 관계였다면 금강산이 열린 이후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평화로 이어지는 시작이었다. 금강산은 남북 교류의 터전이자 다양한 민간 교류의 장이 됐고 신계사 복원 불사도 금강산이 열렸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회고했다.

진우 스님은 “금강산 남북불교문화교류 협력을 열기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며 “막혀 있던 문을 열어 다시 만나고 대화하고 문화와 관광, 경제 협력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분단 상처는 다시 치유될 것이고, 금강산을 함께 오르내리는 발걸음 속에서 긴장과 적대는 무너지고 공존과 상생의 깨달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전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당장 전쟁과 살상을 멈추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한 의지로 언제든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계는 남북이 다시 만나고 소통하는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며 금강산 길이 다시 열려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어지길 발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과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법회에 참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정 장관은 “금강산 가는 길이 끊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18년 동안 다시 이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잇지 못한 것은 무능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적인 관광지로 변모 중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언급하며 “금강산과 원산갈마길이 이어진다면 도행의 아름다운 해안선길은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명소 공간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을 중심으로 불교 교류의 길을 묵묵히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진 조계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도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회 동참자들은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문과 평화통일 발원문을 낭독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은 동참자 대중을 대표해 낭독한 ‘남북평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문’에서 남북 당국 모두에게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연구조사단·순례단 방북 허용 △남북불교교류의 성공적 사례인 금강산 신계사 복원 20주년 행사 협력 △금강산관광과 원산갈마 관광 연계 추진 등을 촉구했다.

민추본 집행위원 정응 스님과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평화통일 발원문을 통해 “화해의 악수로 역사의 깊은 골을 메우고, 상생의 나무로 한반도의 푸른 숲을 가꾸고, 분단의 철책 위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온 누리 수승한 공간마다 통일도량을 함께 세우며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갈 희망의 연꽃을 피우겠다”고 발원했다.

법회 후에는 참가자 400여 명이 ‘금강산 가는 길 걷기’에 나섰다. 이들은 DMZ박물관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40여 분간 행진하며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다졌다. 통일전망대에 도착한 동참대중은 미륵대불 앞에서 회향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항구적 평화를 다시 한번 발원했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불교 교류 및 민간 차원의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강산관광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일환으로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대한민국 국민 대상 북한 소재 금강산관광 프로그램이다. 배와 자가용 육로 관광에 이어 여객 열차로까지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8년 7월 13일 중단됐다. 10년간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남측 관광객은 193만 5000여 명이며 2008년 완공된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봉을 이룬 이산가족은 3900여 명이다.

“제주 4·3 진상 규명이 진정한 아픔 치유”

조계종 사노위, 서울 송현광장서
희생자 극락왕생·명예회복 발원
불교 피해 진상규명·조치 요구



제주 4·3 사건 제78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서울 도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4월 3일 서울 송현광장에서 ‘제주 4·3 제78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번 추모재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당시 희생된 스님들과 도민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노위원 스님들은 공원에 마련된 영단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제주 4·3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노위원 혜찬 스님은 추모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스님은 “국가는 희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 당시 스님 16명이 희생되고 사찰이 전소되는 등 불교계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불교계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정신적 기반을 파괴한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제주 4·3 특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4·3을 폄훼·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역사 왜곡과 희생자 폄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4·3 사건 당시 제주 사찰이 전소되고 스님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노위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개정됐지만 여전히 역사 왜곡과 희생자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제주불교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족과 불교계의 요구가 조속히 반영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기2570년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

4월 17일까지, 조계종 총무부로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은 오는 4월 17일까지 ‘불기 2570(2026)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불법홍포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 △불자의 자긍심 고취 △종단 발전과 홍보 △국가 및 사회 발전 등에 공로가 큰 불자이며, 외국인과 고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불자대상 추천 자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갖고 있다.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자가 추천할 경우 사전에 총무원 총무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추천서류와 공적사항 입증 서류를 작성해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조계사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02-2011-1706

김내영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